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

우 함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사상리론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할데 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강성국가를 건설하자고 해도 그렇고 조국을 통일하자고 해도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을 당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간다는것은 민심을 중시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간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민심을 얻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나간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민심을 중시하고 민심을 잘 알데 대한 사상이다.

민심이란 한마디로 인민들의 마음을 말한다. 모든것의 창조자이고 모든것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그것을 담은 마음이 민심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사회적현상들에 대하여 일정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가진다. 이러한 견해와 관점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담기며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 인민들의 사상적 또는 심리적움직임이 인민들의 마음이며 그것이 곧 민심이다.

민심을 잘 안다는것은 인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것을 잘 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제도와 사회생활, 력사적인 사변과 사건에 대한 관점, 미래에 대한 태도, 사업과 생활에서의 만족과 불만, 행복과 불행, 생활을 더 좋게 해나가려는 지향과 열망, 그 실현방도에 대한 탐구, 자기것과 남의것에 대한 립장 등 인민들이 받아들이고 느끼며 나타내는 모든것에 대하여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것이 민심을 잘 아는 것으로 된다.

민심은 고정불변하지 않다. 마음은 가변적이고 섬세하고 다양하며 행동성을 띠고있다. 일정한 조건과 환경, 계기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고 발현되며 매 사람에 따라 그 강도, 지속성, 속도, 깊이 등이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데가 마음이다. 민심을 잘 안다는것은 결국 인민들의 기분과 감정, 각오와 결심 등을 잘 안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서는 인민을 안다고 말할수 없고 인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민을 귀중히 여길수 없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군중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것을 모든 사업의 선차적인 공정으로 내세워야 한다.

모든 일을 밀어놓고서라도 현실속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으로 들어가는데 진리탐구의 참된 열쇠가 있으며 문제해결의 근본방도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알기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인민을 위한 복무 정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인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다.

일군들은 민심에 어긋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지 말며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민심을 소홀히 대하거나 등지는것은 곧 파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인민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처리할뿐아니라 민심이 나빠질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제때에 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자기 마음을 터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동적으로 민심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맺힌 고리를 풀어주고 걱정거리를 털어버리게 하며 아픈 마음을 달래주어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민심을 중시하고 민심을 잘 아는 숭고한 모범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활동의 갈피마다에 깊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인민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시는 걸출한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한평생을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계시면서 세 살난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심정을 다 헤아려주시였고 그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죄다 털어놓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반세기이상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오직 백승만을 떨쳐오실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인민의 마음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그에 맞게 모든 일을 진행하시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쟁취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사상이다.

민심을 잘 아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한사람이라도 더 쟁취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집단의 단합은 그 성원들이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맞을 때 이루어진다.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이고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라는 말은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당이 민심을 중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면 군중은 속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당을 진심으로 스스로없이 대하고 따르게 되며 결국 대중이 당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된다. 진정으로 마음이 우리나라와서 이루어지는 단결이야말로 명실공히 일심단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닮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진정한 어머니품이다.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70돐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하고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 평범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의 자녀들을 기본으로 참가시키도록 하였을뿐만아니라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의 자녀라고 해도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은 차별하지 말고 대표로 추천하게 한것은 민심을 쟁취하여 일심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인민의 마음의 기둥은 수령이다. 인민의 마음이 오직 자기 수령만을 향하여 열려있고 그들이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치게 되었을 때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었다고 할수 있다.

민심을 얻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심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의 기본요구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여왔다.

당이 민심을 얻는것은 천하를 얻는것이나 같고 민심을 잃는것은 당자체를 잃는것이나 같다.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당은 정치에서 실패와 곡절을 모르고 언제나 승리하기마련이다. 재물을 잃은것은 작은것을 잃은것이고 벼를 잃은것은 큰것을 잃은것이며 민심을 잃은것은 인생의 모든것을 잃은것이라는 말은 혁명과 건설에서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면 서로가 상대를 신뢰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일에서 성수나고 사업성과도 오르게 된다. 사람들이 굳게 마음다지고 나선 혁명의 길에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지만 대세를 따라 일시적으로 나선 길은 도중에 물러서게 되는것은 바로 마음으로 하는것이 혁명이라는것을 잘 보여준다.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추동력도 민심에 있다. 마음이 뭉치면 물방울로 강철판에 구멍을 뚫을수 있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사람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치고 힘을 합치면 혁명과 건설에서 부닥치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수 있게 된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에게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정치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해 줌으로써 가장 인민적인 사회제도로써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릴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켜야 민심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강화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인민이 요구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한가지라도 인민들이 기뻐할수 있는 일을 찾아함으로써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

직위와 공로, 출신, 경력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당이 맡겨준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리지킴이나 하면서 사회와 집단에 부담을 주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것이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길인 동시에 민심을 얻는 길이다.

출판보도기관들은 제국주의반동세력들과 그에 추종한 일부 불건전한자들이 우리의 민심을 소란시켜 사회주의계급진지를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의 진수를 깊이 인식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